제자리 찾은 종회…비구니 호계위원 또 부결

제23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헌 개정안 두고 격론 끝 표결
종법 개정 '0'…원로의원 추천
결산 원안 승인, 4월 1일 폐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31일 개회해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과 각종 인사안 등을 처리하고 4월 1일 폐회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이후 9개월 만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종헌·종법 개정안 줄줄이 이월·폐기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와 장로 대종사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끝에 부결됐다. 종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 8건도 모두 이월되거나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의사일정 확정부터 격론을 벌였다. 종헌 개정안 2건은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지만,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법제분과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진각 스님은 "법제분과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들은 보류된 사안"이라며 "이를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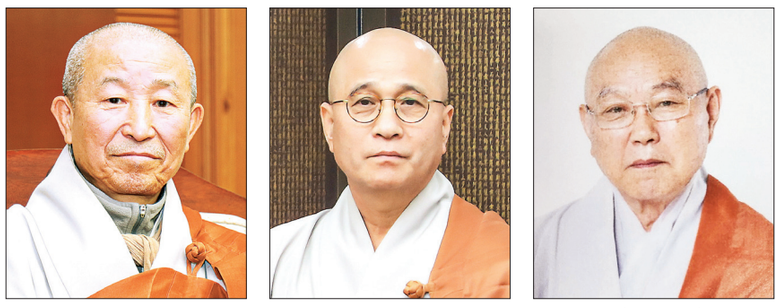
이에 심우 스님은 "종앙종회법 제41조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일 뿐"이라며 "분과위가 안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중앙종회는 거수 표결(찬성 41표, 반대 17표)을 통해 종헌 개정안 2건과 관련 종법 개정안 등 총 5개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했다.

곧이어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75명 중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발의자인 정운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가 지속돼 온 만큼 종단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이어졌다. 진화 스님은 "현재 종헌 73조 3항에는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는 명시가 이미 돼 있는데, 이를 손보지 않고 종헌 개정안이 성안된 것은 종회의원 81명과 종회사무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종헌 개정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원로회의에 추천된 취성 도법 대종사, 영담 덕운 대종사, 지봉 정완 대종사(왼쪽부터).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종헌 개정 등 17개 안건을 다룬 뒤 4월 1일 폐회했다.

장로 대종사 법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도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장로 대종사 법계를 새로 두고, 종헌 제28조 제6호에 규정된 원로회의의 자격을 '장로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논의 초기부터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은 "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서 '대종사 자동 품수'를 인정한 법계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종단 어른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림 스님은 "보다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진 스님도 "승가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위상과 예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적의원 71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쇠락한 공찰을 중창 수준으로 발전시킨 주지를 '중창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찰법 개정안'과 승려법상 사정이 '병(丙)'과 '정(丁)'인 스님의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성, 차별 소지 등을 이유로 이월됐다.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종립학교 보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발의자 철회 요청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호계원법 개정안 2건과 원로회의법·법계법 개정안은 종헌 부결로 일괄 폐기됐다.

원로의원 만장일치 추천

중앙종회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취성 도법 대종사(금산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쌍계사), 지봉 정완 대종사(용주사)의 원로의원 추천을 만장일치 동의했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성공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는 전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성구·자성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으로는 각평·자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봉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종봉 스님과 현무 스님이 추천됐으나, 현무 스님의 사퇴로 종봉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덕문 스님 사직에 따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복수 후보자로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과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추천됐다. 향림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로는 전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과 총무원 교육국장 지현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원경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에는 대진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또 불기 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 대비 97.7%인 378억8159만3568원,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117.6%인 776억571만4038원이다.

중앙종회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4월 1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6차 한중일불교대회 10월 20일 불국사

종단협, 3월 31일 예비회의서
본대회 일정 및 세부내용 합의
진우 스님 "한중일 힘 모으자"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3월 3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남산3룸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열린다. 삼국별 축원을 올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과 국제학술강연회 및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세계평화 염원이 담긴 공동선언문은 논의를 거쳐 8월경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은 "경주 불국사는 오랜 역사로 한국불교의 상징적 도량으로, 삼국 유대를 더욱 뜻깊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깊은 교류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만 합의를 마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각국 교류위원단은 4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사진〉



진우 스님은 "올해 10월 한국대회를 잘 준비하겠다"면서 "동북아시아 대표국인 한중일의 불교계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상근부회장 종성 스님은 3월 31일 예비대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많은 스님들이 참여, 삼국 불교계의 우호교류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국제정세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일수록 한중일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 카쿠쇼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국사에서 대회를 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시기, 삼국 불교계가 손을 맞잡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상진 스님 봉하마을 방문

3월 29일, 김경수 전 지사 등 동행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기원했다.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지도자들은 3월 29일 봉하마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인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되새겼다.

방문에는 중앙원로수석부의장 지현 스님, 경남종무원장 황봉 스님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곽상언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방문에서 상진 스님은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종교와 이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 역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실천에 더욱 힘쓰며, 국민 통합과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창종 제67주년을 축하합니다

경 대한불교총화종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축

총화인권위원회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

붓다의 정법(正法) 당간지주를 세운 지 예순일곱 해. 과거의 지혜를 받들어
오늘의 아픔을 보듬고, 다가올 천년의 희망을 일구는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1. 성찰(省察):67년 전 창종한 초발심(初發心)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2. 상생(相生):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 미래(未來):시대를 선도하는 지혜로 온 생명의 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종 제67주년 대한불교총화종 미래 비전 선언문

대한불교총화종의 지나온 67년은 밑 거름이요, 다가올 미래는 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그날까지 대한불교총화종은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고,자비로운 이는 온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 듯" 행(行)으로 부처님의 전법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정법(正法)이 일상이 되는 수행 종단
둘째.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
셋째. 디지털 시대의 포교를 선도하는 혁신 종단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일정
총화인권위원회 제1회 인권상 시상식

• 일 정 : 불기2570(2026)년 4월 15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실상사 설선당
• 주 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 문 의 : 총무원(043)745-4508. 010-5436-2740

사단법인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 각 종도스님 및 포교사 사부대중 일동
종회의장 법 만 불교전통문화계승단 단장 본 원 총화인권위원회